국내
마감시황

2026.3.17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뉴스에 따른 전강후약 장세

이란, 중국, 인도 등 일부 선박들, 호르무즈 해협 통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긴축 우려 부상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5,640.48pt (+1.63%)	1,136.94pt (-0.12%)	840.89pt (+1.70%)
달러-원 환율	**韓 10 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91.60 원 (-0.3 원)	3.6750% (-0.5bp)	6,722.00pt (-0.50%)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5,752 억	+1,401 억	+1,605 억
외국인	-1,730 억	-558 억	-125 억
기관	+7,337 억	-367 억	-1,066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긍정, 부정적인 뉴스가 혼재되면서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이란,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일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요국들의 긴축 우려가 부상하며 장 후반 코스피는 상승폭을 축소했고,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의 호위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장중 유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KOSPI는 1.63% 올랐고, KOSDAQ은 0.12% 내렸습니다. 금일 KOSPI 거래대금은 약 21.8조원, KOSDAQ은 약 12.9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2천억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화학과 IT 서비스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부품과 금융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7천억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전기/전자와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기계/장비와 전기/가스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엔비디아 GTC 기조연설에서 젠슨 황이 양사 간 협력을 강조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GTC에서 HBM4E(7세대) 실물을 최초로 공개하며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차익실현 이어졌던 원전,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반등했습니다. 그 외, 화장품, 2차전지 업종이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방산, 게임주가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삼성전기(+8.11%), 한화솔루션(+7.38%), 삼성전자(+2.76%)가 올랐고, 펄어비스(-7.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5.42%), LIG넥스원(-3.42%)이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